

# 8년만의 직선제... 전남대 총장 선거 5파전

### 9월 28일 온라인 선거 진행 자연계열 5명 자천타천 출마 교수·직원·조교·학생 참여 9월 7~8일 이틀 후보자 등록

이번 선거는 2012년 학칙 개정 이후 8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다. 전남대는 1988년 교수회 주도로 직선제를 도입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12년 간선제로 학칙을 개정한 뒤, 8년 만에 다시 직선제로 바꿨다.

투표에는 교수·직원·조교·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며, 논란이 됐던 선거인 표 반영비율은 '교수 100, 직원 14, 조교 3, 학생 2, 시간강사 2'로 결정됐다. 즉 전체 교수는 100%로 잡을 경우 직원 14%, 조교 3%, 학생과 강사 각 2%씩 반영되는 셈이다. 조선대처럼 총동창회 투표 참여 방안도 논의됐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후보자 등록은 9월 7~8일 이틀간이며, 보직교수는 총장 임기 만료 150일 전까지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달 15일

까지 사임계를 내야 한다. 선거운동은 9월 9~22일까지 2주간 이뤄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당일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예비 후보자는 모두 5명에 이른다.

김영만 전 공대학장(신소재공학부)과 송진규 전 연구처장(건축학부) 등 공대에서 2명, 이근배 전 교수평의회 의장(정형외과)·정성택 전 학생처장(정형외과) 등 의대에서 2명, 허민 전 부총장(지구환경과학부, 이상 가나다 순) 등 총 5명이다. 허 전 부총장만 2번째 도전이고, 나머지에 비 후보자는 처음으로 도전장을 냈다.

인문계와 자연계가 번갈아 총장직에 오르던 관행(?)을 깨고, 앞선 두 차례 선거에서 인문계열인 지병문(정치외교학과)·

정병석(로스쿨) 교수가 총장에 오르면서 이번엔 자연계열 차례라는 목시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입지자들은 나름대로 캠프를 꾸리거나 총장 선거 경향이 있는 영향력 있는 교수를 포섭하는 등 사실상 선거체제에 돌입한 상태이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전환기적 의미가 강하다"며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 시대적 요구를 넘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 추진력과 결정력을 지닌 총장을 선출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 총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나 현 정병석 총장의 경우 '임기 만료 때만 65세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돼 출마할 수 없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6월보다 덜 더운 7월... 사상 첫 '기온역전'

6월 22.8도 7월 22.7도

올해 사상 처음으로 7월 평균기온이 6월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월은 때 이른 폭염으로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했으나, 7월은 매우 선선해 전국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처음으로 7월 평균기온(22.7도)이 6월(22.8도)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6월과 7월의 평년 기온은 각 21.2도와 24.5도다.

올해 1~7월 평균기온은 역대 3위지만, 월별 기온 변동이 매우 컸다. 1~3월과 6월은 상위 3위 안에 들었으나 4월과 7월은 44위로 푹 떨어졌다.

들쭉날쭉한 우리나라와 달리 전 세계 1~6월 평균기온은 역대 2위로 월별 큰

차이 없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여름철 전국 강수량은 879.0mm로 평년(470.6~604.0mm)보다 많아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여름철 전국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1년 942.2mm다.

올해는 중부와 제주에서 가장 장마 기간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부는 오는 16일 장마 종료 시점까지 54일로 앞서 1위였던 2013년 49일보다 5일 더 많아진다. 지난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강수량은 1천193.5mm로 역대 3위다. 월별로는 1월 291.7mm, 7월 691.8mm, 8월 1~10일 2위이고, 3월과 4월은 각 41위와 43위다.

기상청은 지난 6월 말부터 우리나라 주변의 대기 상·하층에 찬 공기가 정체하면서 지난달 기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광주 남구 슬레이트 지붕 교체

광주 남구가 약계층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다음달 11일까지 대촌동과 월산동 지역에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가 진행되는 세대는 슬레이트 지붕이 낡고 오래돼 빗물이 스미거나 경사가 매우 심한 형태로 설치돼 붕괴 염려가 있는 집이다. 이들 집에는 주로 독거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는 석면을 포함해 슬레이트를 철거한 뒤 지붕 개량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 단체 수해복구 일손 돕기 13일 오후 5·18 3단체(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회원과 5·18기념재단 임직원 50여명이 폭우로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광주시 광산구 임곡 일대 농장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동신대 대학일자리센터 학과별 진로취업 로드맵 제작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12일 재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진로·취업 지원을 위해 학과별 진로·취업 로드맵 책자 '취업 내비게이션'을 제작했다.

이 책은 학과별로 전공 교과목, 1~4학년 때 취득 가능한 자격증, 졸업 후 취업 가능 기관과 기업, 우수 취업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학년별로 참여할 수 있는 인턴 프로그램, 공모전, 비교과 프로그램, 현장실습 등 입학부터 졸업까지 맞춤형 진로 설계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

### 민족문제연구소, 광복 75주년 독립운동가 이기흥·장재성 서훈패 증명

광주학생독립운동 중심 인물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가 광복 75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고(故) 이기흥·장재성 선생에게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서훈패를 증명한다.

13일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에 따르면 연구소는 광복절인 15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싸목싸목 다목적홀에서 이기흥·장재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서훈패 증명식을 갖는다.

연구소는 두 선생에 대해 광주학생독립

운동의 중심인물이었지만, 75년 동안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했기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안도 출신인 이기흥 선생은 광주고보 2년에 재학중인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가하고 이듬해 '백지동맹'을 주도해 퇴학 당했다. 이후 고향으로 향할 농민운동을 이어가다 1934년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고, 해방 후에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에 맞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십여년간 옥살이를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선생은 1996년 망월동 묘역에 안장됐다.

장재성 선생은 1926년 광주고보 재학 시절 항일운동 비밀결사인 '성진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이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옥고를 치렀다. 해방 뒤 1950년에는 사국사범으로 낙인 찍혀 광주형무소에 수용되기도 했다.

정부는 장 선생에 대해 1962년 건국공로훈장 추서 대상으로 결정했다가 좌익 활동을 문제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주말·연휴 폭염·열대야 기승

광복절 연휴 기간 광주·전남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3일 오후 1시 40분을 기해 담양·곡성에 폭염특보를, 광주·전남 대부분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광주 33도, 곡성 33.3도, 담양 33.2도 등이었으며 체감온도는 담양 35.4도, 곡성 35도 광주 34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15일까지 낮 기온이 32도 이

상 올라 매우 덥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6도, 낮 최고기온은 30~33도,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6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 북구의회 징계기준 강화 윤리강령 개정

비위 백화점으로 불리던 광주시 북구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의원 징계조례 중 최고 수준의 징계기준안을 마련했다.

13일 광주시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의회는 '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전면 개정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북구의회는 강화된 윤리·행동강령으로 주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징계기준안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성비위행위, 이권개입, 영리거래금지 제한 위반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 최고 징계수위로 의원직을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의회 징계기준안' 개정안은 오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264회 임시회(9월 중)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송원대 식품영양학과 '온라인 요리경연대회' 개최

송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최근 '코로나19'에 발맞춰 비대면 요리대회를 개최한다.

송원대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음식만들기에 영양과 건강을 생각한 '내몸이 좋아하는 온라인 요리경연대회'를 한식요리와 제과제빵에 관심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4일 신청을 받아, 18일~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원대 식품영양학과는 매년 주제를 정해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온라인 요리경연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이번 대회는 제과제빵 만들기 동영상상 10분 분량 내외로 만들어 제출하면 되고, 시상은 9월 초에 갖는다. 시상 후 수상작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

##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교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교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0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목회학과(D.Min.)	0
		유아교육학과(D.Ed.)	0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
		유아교육학과(M.Ed.)	0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0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8. 5(수) ~ 14(금)  
· 전 형 일: 2020. 8. 19(수)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11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1길 36-1